중금속 함유한 비·이슬 '공포의 대상'

물고기 죽고 곡물 감소…삼림은 날로 황폐

부처님의 지구 사랑 ⑯ 전재성

물의 산성화

북유럽의 농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몇년동안 매우 즐거워 했다. 스웨덴,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질소비료를 주지 않아도 작물이 잘 자랐다. 수많은 호수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던 커다란 물고기들이 잡혔다. 농민들은 그 원인도 모른 채 "하늘의 은총"에 기뻐 날뛰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1950년대에 들어서자 작물의 수확량은 감소하고 호수나 하천의 물고기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대 바이킹의 유적이나 교회의 청동상 그리고 오래된 돌담이 누더기처럼 손상되어 갔다.

그 원인은 유황이나 질소의 산화물에 의해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화된 이슬, 서리, 비, 눈 때문이었다. 그들 유황이나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중부유럽의 공업지대에서 날아온 것이었다. 당시 북유럽에 내린 빗물의 산성도는 PH 4~5로 토마토쥬스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띄고 있었다. 북아메리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는 빙하의 영향이 최후까지 남은 곳으로 암질이나 토양층이 얇아 산성비를 중화시킬 염류가 적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지역이다. 호수나 강의 물이 산성화되면 PH 5부터 급속도로 물고기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산성도에 민감한 플랑크톤이나 수생식물이 먼저 영향을 받아 감소하여, 먹이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PH 4.5 이하로 내려가면 알이 부화되지 않을뿐 아니라 물고기들은 아가미에 타격을 입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호수와 강은 천연의 자연환경과 그림처럼 맑고 아름답지만 이제 상당수가 생물이 살지않는 죽음의 호수,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다. 물론 이 지역에서 산성비에 의한 토양 및 산림의 피해는 더욱 엄청난 것인데 이미 지적했듯이 50%의 삼림이 병들어 황폐화되고 있다.

그밖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대도시 주변은 대부분 PH 4~5.5의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데, 호수나 강에 그로 인한 피해가 적은 것은 두터운 토양층에 그것이 비교적 잘 중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양의 유실이나 작물과 삼림에 대한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중국에서도 산성비는 벌써 공중사신(空中死神)이라고 부르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대도시 소주, 광주, 남창, 귀양, 귀주같은 곳은 PH 3.0~4.0의 세계적인 강산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중경에 내린 레몬만큼 신 산성비는 모든 논의 벼를 말라 죽게 했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이나 일본에도 대부분 PH 4~5의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부지방과 대도시 주변은 PH 3.9~4.9의 강산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성비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동북공업지역이 산업화되면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화된 물은 중금속을 용해시키므로 때로는 맛있고 향기롭고 빛깔도 곱지만 독약이 든 물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물그릇이 있는데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를 갖추고 맛있는 물이 담겨있으나 독약이 섞여 있다. 이때에 더위를 먹고 더위에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친애하는 자여, 이 물그릇에는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를 갖추고 맛이 있는 물이 담겨있으나 독약이 섞여있다. 원하면 마셔라. 네가 마시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와 맛 때문에 입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마시면 그로 인해 죽음이나 죽음의 병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다."

◇산성비는 나무를 고사시킨다. 사진은 독일 흑림지역 피해현장.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초발심 다지는 주춧돌

더 깊은 가르침 향한 열린 문

금주의 주제: 기초교리 공부

아침 11시. 불광동에 사는 김미정보살(39세)은 아이들을 모두 학교에 보내고 집안 정리를 대강 끝낸 후 얼마전부터 시작한 삼보사 기초교리강좌를 듣기 위해 부리나케 집을 나섰다.

오늘은 부처님의 초전법륜에 대해 배우는 시간.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가지를 배워온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렌다.

"기초교리를 배울수록 제 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누구 앞에서나 자신있게 불자임을 밝힐 수 있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김보살은 "불자라면 누구나 기초교리부터 열심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그간 강의를 통해 다져진 자신의 신심을 한껏 자랑했다.

이처럼 각 사찰에는 초발심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가 거의 개설돼 있어 바른 불교이해와 그를 통한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끌어나가기에 여념이 없다.

팔정도, 삼법인, 12연기에 이르는 기초교리를 비롯 반야심경, 금강경등 경전강의가 진행되는 기초교리강좌는 각각 저마다 특징으로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초교리공부를 통해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되고 그를 통해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하나라는 깊은 교감을 얻어 더 높은 경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각종 교양대학과 신행단체의 기초교리반 강좌와 시내불교서점에서 불교입문서, 기초교리서 등을 찾는 분주한 불자들의 발길은 바로 그런 모습의 반영이 아닐까.

"요즘 불자들은 이전의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기초교리등의 강좌를 통해 충족시킨다"고 말하는 법안정사의 도원스님은 "기초교리습득을 통해 단순히 믿고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행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며 기초교리공부를 통한 변화된 불자들의 모습을 설명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발심제자로 나선 불자들에게 있어 기초교리 공부는 신행의 첫걸음이자 주춧돌이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튼실한 기초교리의 토대위에서 불자들의 신행생활은 더욱 윤택해 질테니까.

신행수첩

관음보살 자비심 배우자

남해 보리암 철야정진

푸르른 녹음사이로 반짝이는 햇살만큼이나 아름다운 불심을 모아 철야정진 수행법회를 떠나보자. 용진신행회는 오는 7월8일~9일 남해 보리암 관음성지로 철야기도를 떠난다.

남해 용문사, 지리산 칠불사 등을 거쳐 짙푸른 남해의 바다내음을 맡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철야정진기도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02)279-1191~3

무더위 잊는 국토기행

도산서원·부석사 순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우선 얼음을 한줌 입에 넣고 국토순례 모임 '터사랑'에 전화를 건다. 얼음이 서서히 녹을때쯤 신호가 떨어지면 오는 7월 8, 9일 이틀간 진행될 국토순례에 참가신청을 한다.

당일날 간편한 복장으로 문밖을 나서 안동일대 퇴계 이황선생의 도산서원과 민속박물관을 둘러본다. 다음엔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영주 부석사의 우아함을 마음속에 담아보라. 조상들의 숨결과 역사의 향기앞에 어찌 땀방울인들 고개를 숙이지 않겠는가. (02)725-1284

"선생님도 재충전을"

초중고 교사 불교연수회

나라의 보배인 2세의 교육에는 교육자가 품고 있는 정신적 소양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이 8월2일~5일 3박4일간 경주에서 마련하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불교연수회는 선생님들의 일상에 지친 심신을 여유롭게 하고, 복잡한 일상속에 얽매인 마음을 비우게 함으로써 어린 제자들을 자비롭게 지도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경주 불국사·석굴암 및 남산에서 이기영원장과 동국대 정병조교수의 알찬 강의로 진행될 이번 연수회에는 불국사 조실인 월산스님의 특별법문도 준비되어 있다.

접수마감은 7월5일. (02)575-6167~8.

땀으로 엮어가는 젊음

불자연, 자원봉사학교

내리쬐는 태양아래 땀방울로 영글어가는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자원봉사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키 위해 '95 서울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서울·경기지역의 중고등학생 1백명,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10일까지 실시되는 청소년 자원봉사 여름학교는 봉사활동 기록부를 작성해 학교로 우송, 성적에 반영토록 하는등 올바른 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기초작업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02)723-6257

백제얼 깃든 미륵도량

김제 금산사 명찰순례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명호근)가 7월8일(토) 1박2일의 일정으로 미륵부처님의 길을 따라 금산사로 함께 떠날 길동무를 기다린다.

총동문회 공동회장으로 있는 이순규박사의 해설이 곁들여질 이번 명찰순례에 신심깊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02)237-5751

컴퓨터로 종무행정

분황사서 무료교육 실시

다가오는 미래를 사람들은 흔히 컴퓨터에 의한 '정보사회'로 부른다. 컴퓨터는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찰의 종무행정에도 컴퓨터는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법회자료등 각종 정보들도 컴퓨터 통신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 분황사(주지 종수)와 경주 아이맥스 시스템(대표 박종훈)은 각 사찰의 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과 신도들을 위해 7월3일~8월18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오후 2시, 4시에) 분황사 경내에서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내용은 MS-DOS·WINDOWS의 개념과 사용법, 한글워드프로세서 사용법, 통신용 프로그램 사용법 등으로 짜여 있다. (0561)42-9922, 41-0562.

양심수에게 웃음을

경전, 영치금, 편지 보내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자신이 뜻한 바와 달리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일지도 모른다.

불교인권위는 전국 교도소에 있는 양심수들에게 경전 보내기, 영치금 보내기,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비록 책이 낡았어도, 영치금이 적더라도,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이를 받아보는 양심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을 떠올려 보라.

언제나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았기에 양심수라는 멍에를 둘러쓴 이들에게 마음속 우러나는 정성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또다른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일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02)734-6401

◇국보 제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는 주불로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봉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는 고려시대 목조 불전이다.

기타로 듣는 청정 佛音

직지사 대구포교원

직지사 대구 수성구 포교원(원장 도일스님)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찬불 가요방 법회를 봉행한다.

대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김석봉씨의 지휘와 도일스님의 기타반주로 1부 찬불가 및 합창연습을, 2부 가곡 및 가요부르기를 실시한다.

후덥지근한 한여름 찌들린 도심속이지만 불향 그윽한 법당에서 기타반주에 맞춰 음성공양의 시간을 갖는 것도 특별한 낭만이 있을 법하다.

(053)425-8356

생활속의 불교 ㉚

낙원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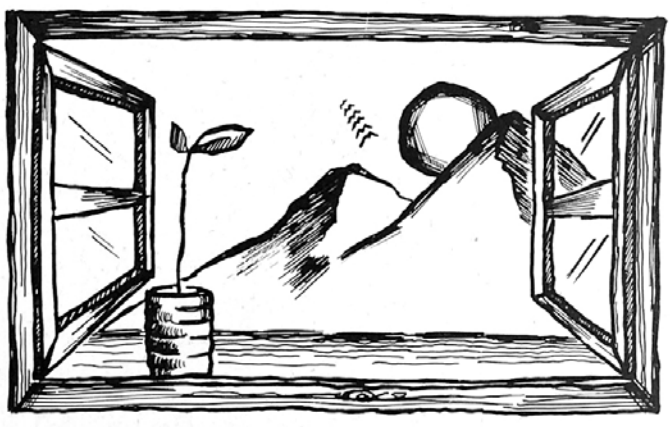
우물 안 개구리가 본 하늘은 동그랗다. 때로는 푸른 빛깔, 때로는 잿빛의 동그라미다. 그래서 소견 좁은 사람을 빗대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 부른다. 제 눈에 비춰진 세계를 유일·절대라고 고집하는 모습이 꼭 우물 안 개구리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물 안 개구리이다. 스스로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 없고, 그런 중에도 나만은 아니다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 알고보면 누구나 우물 안 개구리이다. 왜냐? 누구나 다 관념의 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념이라는 대롱을 통해 바라본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착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세상의 온갖 사물—사람, 사건, 환경을 접할 때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려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열린 마음의 깨달은 이를 빼놓고는.

우리의 관념은 우선 육체적인 한계(육근)에 영향을 받는다. 배 고플 때와 배 부를 때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듯이.

또 자신의 선입관, 이해관계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정치인의 이합집산이 아니더라도 각자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제 속



마음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관심도에 따라 다르고, 다가오는 경계의 반복성에 따라서도 앞뒤의 생각이 달라진다.

문화·사회적인 전통·습관도 나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어찌 진실이라고, 절대라고 강변·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 관념을 유일·절대인 양 우겨댄다. 밤에 본 새끼줄이 새끼줄이 아니라 뱀이었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논하고 남을 손가락질한다.

선사들은 그런 모습을 일컬어 통 속에 갇혔다고 한다. 온산철벽에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한다. 관념이라는 감옥에 갇힌 꼴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삼독심(三毒心)이라 하셨다.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극물은 바로 각자의 어줍잖은 관념이라 하신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땅 넓고 하늘 광활한 줄 모른다. 관념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유자재로운 광야의 낙원 같은 삶을 알 수 없다.

관념의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한 그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불법은 열린 마음을 가르친다. 우물 밖, 통 밖의 삶을 가르친다. 온산철벽 깨는 길을 가르친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가르친다.

협찬 : 포항 원심회, 원공회, 원각회, 원중회, 원근회, 원만회, 원불회